

건설사 등 65개 기업 워크아웃·퇴출

■ 6개 채권은행, 부채 500억이상 기업 신용위험평가

광주·전남 금광기업·남진건설 등 포함

‘워크아웃’ 38社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건설사 16곳을 포함해 금융권에 빚이 많은 65개 기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광주·전남 기업 3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국민·신한·산업·하나은행과 농협 등 6개 채권은행은 25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198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해 65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 중 C등급(부실준회기업)을 받아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은 38곳이다. 업종별로는 ▲건설 9곳 ▲조선 1곳 ▲해운 1곳

■ 워크아웃·퇴출 건설사 명단

C등급 (9곳)	벽산건설 신동아건설 남광토건 중앙건설 청구 한일건설 한라주택 제일건설 성우종합건설
D등급 (7곳)	금광건설 금광기업 남진건설 진성토건 풍성주택 대선건설 성지건설

* C등급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D등급은 자체 정상화 또는 기업 회생절차 신청 대상 (연합뉴스)

▲금속·비금속 제조 10곳 ▲전기전자 제조 5곳 ▲비제조업 5곳 등이다. 채권단의 자금 지원 없이 경영정상화를 하거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하는 D등급(부실기업)은 7개 건설사와 2개 조선사를 포함해 27개 기업이다. 이 중 상장사가 16개에 이른다.

구조조정 명단에 오른 16개 건설업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26위인 벽산건설을 비롯해 신동아건설(31위), 남광토건(38위), 한일건설(39위), 청구, 한라주택, 성우종합건설, 중앙건설, 제일건설 등이 워크아웃에 들어간다.

상장기업인 성지건설(69위)과 금광건설,

남양건설 계열사인 남진건설도 법정관리 중이다. 전국 179위, 광주·전남 19위인 남진건설은 모기업인 남양건설의 유동성 악화로 관계사들에게 644억원을 대어줬는데 지난 달 5일 14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 됐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들이 포함돼 충격은 덜하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C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B등급 건설사에는 대주단 협약 운영기회를 오는 8월까지 연장해 금융권 채무 상환을 최장 2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채권단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협력업체 가운데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빠지는 곳에는 중소기업 패스트트랙(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박정국기자 jwpark@kwangju.co.kr

대기업 ‘타임오프’ 엄수 결의

노조측 요구 단호 대처키로

주요 대기업들이 다음달 1일의 ‘타임오프’ 시행을 앞두고 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노조 측 요구에 단호하게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LG, 두산, GS칼텍스, 금호아시아나 등 대기업 20곳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타임오프’ 시행과 관련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제한하는 타임오프제를 엄수해 전임자에 대한 편법적 급여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에 저촉되는 노조 측 요구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노조 전임자에게 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이 문제로 사측이 처벌받지 않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러시아 청소년들 광주서 포크댄스

러시아 청소년 수학여행단 50여명이 25일 광주시 서구 치명중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포크댄스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야 4당 “7·28 재보선서도 뭉치자”

민주·민노·창조한국·참여당 대표 회동 연대모색 논의

야 4당이 7·28 재보선에서도 연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6·2 지방선거에서 후보단일화 논의에 참여했던 민주, 민노, 창조한국, 참여당은 25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대표 회동을 갖고, 서울 은행을 등 8곳에서 치러지는 내달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연대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 4당은 특히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출마가 유력시되는 은행을 선거를 ‘4대강 찬성’과 반대 세력의 상징적 싸움’으로 규정하고 ‘4대강 찬성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야권의 세력결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야당과 시민사회가 지방선거에서 연대를 이룬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돼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정책연대를 잘 실천하고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정신을 어떻게 살려갈지가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창조한국 송영오, 참여당 이재정 대표는 “7·28 재보선을 비롯해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연합을 잘 이뤄 국민 뜻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보선 연대’가 실현될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벌써부터 후보단일 현상을 빚고 있는 민주당이 소수 야당에 공천을 양보할 만한 마땅한 선거구가 없는 데다 상당수 지역에서 여당 후보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새신연대 멤버인 정동영 김경진 천정배 문학익 강창일 의원 등도 이날 민주당 통합시민행동(상임대표 이창복) 등 시민단체 지도부 인사들과 오찬회동을 갖고 7·28 재보선 등에서의 야권연대에 대해 논의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천리안 또 연기 27일째 재발사

국내 자체 연구개발에 의해 제작된 첫 저궤도 위성으로 기대를 모았던 천리안 위성의 발사 재시도가 무위로 돌아갔다.

천리안 위성은 당초 계획보다 24시간 연기된 25일 오전 6시 41분(현지시각 24일 오후 6시 41분) 남미 프랑스령 가이아나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발사 17초를 남긴 상태에서 카운트다운이 멈췄다.

이상을 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본부장은 “발사체 1단의 압력저하가 또 감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사체 27일 발사 재시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 서해상 항행금지구역 선포

내일까지 ... “방사포 및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북한이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북측 내륙 서해상에 항행금지지역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5일 “북한이 서해상 1곳에 지난 19일부터 이달 27일 까지 항행금지지역을 선포해 군사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북측이 선포한 구간은 남포 이북지역 지역의 해상”이라며 “240mm 방사포 등 일상적인 훈련일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지만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 출국

캐나다 등 북중미 3국 순방

이명박 대통령은 캐나다, 파나마, 멕시코 등 북중미 3개국을 차례로 방문하기 위해 26일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26~27일(이하 현지시간) 열리는 제4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추진 중인 개발 이슈 및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 정상회의 첫날인 2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특히 한미 정상은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 문제를 협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28~30일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파나마를 공식방문, 마르티네리 파나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이어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멕시코로 이동, 다음달 2일까지 국민 자격으로 머문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중두

참 지경계도 ‘소통’ 안된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여야 절충 실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절충에 실패한 채 회의를 마쳤다.

야간 옥외집회 허용 범위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전날 파행했던 행안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들이 행안위 회의장 정거를 풀면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의원들간 견제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일몰후 불허되고 있는 야간 옥외집회를 밤 11시~오전 6시'로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시간문제는 일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모든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자정~오전 6시’ 주거지역, 학교와 군사시설 주변 등지에 한해 선행 규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과 진보신당도 집시법 10조를 폐지, 야간집회를 전면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의 안경원 행안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협상의 장이 열렸으나 여야 원내 지도부와 야당 간사협의의 병행해 절충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오늘 합의 안되더라도 강행처리는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26-27일 비공식 접촉을 통해 절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나 여야의 입장차가 현격한 데다 큰 틀의 양보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여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개정안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20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성매체부 2200-679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